

정_시

원_서

빵_{꾸찾는 법}



1. 내 성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 하향/안정/상향/모험
3. 낙지/고속/텔그 무엇이 좋을까?
4. 빵꾸에 대하여
5. 카카오톡 상담 주소

[자료 1]

1. 내 성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책을 구매하신 여러분은 분명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현재에도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요행을 바라고 소위 말하는 ‘빵꾸’를 찾기 위해 수백 만원어치의 금액을 들여 컨설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한달간 만들면서, 그러한 업체들의 빵꾸 지원 전략을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제 제자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이 빵꾸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사실 전 그전까지 그러한 컨설팅이 사기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사실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빵꾸 찾기의 시발점은 자신의 성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모집인원이 적은 학과
의 경우 마지막까지 안정, 적정을 파악하기 어
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작년 입결표를 찾아
보는 법이 있겠습니다. [자료 1 참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유념해야 합니다.
바로 대학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것인데, 여
기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진학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진학사의 경우 제 성적대를 입력하
면 Z점수까지 고려해서 보여주는데,

진학사 합격예측 (3개 중 2.5개 맞음)

메가스터디 합격예측 (3개 중 2개 맞음)

이투스 모지 (3개 중 1개 맞음)

여기서 칸 수 정확도는 최초합, 추가합격(추합), 불합격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정도의 정확률이라고 모 컨설팅 업체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실제 업체에서 말하는 대학 원서 제출 비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case 1) 나는 올해 꼭 대학에 가야 한다.

하향을 무조건 하나 넣으십시오.

이게 싫으시다면 적정을 3개 넣으셔야 합니다.

하향을 쓰기 아까워하는 학생도 있는데, 오히려 상향을 하나라도 적으려면 하향 1개는 필수입니다.

case 2) 나는 가능하면 올해 가고 싶다.

적정을 두 개, 상향을 1개 넣으시는 게 정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란 올 2등급 학생이 중경외시를 넣는, 보편적인 그 정도 수준의 적정을 의미합니다.

case 3) 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아니면 안간다. or 내년 재수 목표이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내년 재수가 가능한 학생들은 모험과 상향으로 채우라 말합니다.

왜냐, 어차피 이런 학생들은 적정의 대학에 붙어봤자 다시 공부해서 높은 학교를 노려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낭비하지 마시고 상향, 모험으로 지르세요!

중요한 것은 원서 카드를 넣는 대학의 모집 비율입니다. 만일 특수한 전형을 넣지 못하는 경우, 학생 수가 많고 모집 인원이 많은 대학에 넣으셔야 합니다. 예비 번호가 많이 돌았던 학과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낙지(진학사): 영향력(큼)->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표본이 이용

합격 확률이 색상이 아닌 1~10 사이의 수로 보여줌

3칸 이하부터면 스나이핑을 제외하고는 건들지 않는 게 나음

7~9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합격

지원자들이 매일 들락거리므로, 나보다 높은 점수의 1,2,3 지망 학과를 보고 실지원자인지 허수인지 판단 필요

표본분석을 돕는 다양한 기능 존재

고속(고속성장분석기): 영향력(큼)

사용이 쉽고 직관적(진초록(80%))~빨강(20%미만))

사람들이 고속에 맞춰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커트라인이 여기서 결정

그러나, 당해연도 지원자들의 지원경향을 반영하는 진학사에 비해 단점 존재

텔레그노시스: 윤도영이 고속성장에 대한 도전
으로 개발

장단점은 고속과 비슷하나, 상위권 학생용인만큼 모든 학과에 대한 예측결과를 볼 수는 없음.

